

아쉬웠던 성적에도 큰 무대에서 강했던 '우승 청부사'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10> 투수 에릭 라우어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데 집중했고, 충분히 좋은 공을 던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언제든지 타이거즈를 위해 다시 마운드에 오를 준비가 돼 있다.”

올 시즌 도중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에릭 라우어에게 가장 먼저 붙은 별명은 '우승 청부사'였다.

외인 2선발을 책임졌던 월 크로우가 개막 2개월여 만에 팔꿈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뒤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캠 알드레드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며 이들을 동시에 웨이버 공시하며 떠났던 승부수기 때문이다.

라우어에 대한 기대감의 규모에는 화려한 경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밀워키 브루어스를 거치며 여섯 시즌 동안 120경기(선발 112경기)에 나서 596.2이닝을 소화했고 36승 37패 2홀드와 평균자책점 4.30의 성적을 남겼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 이력에도 불구하고 MLB에서만 네 시즌을 풀타임 선발로 활약한 라우어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던 KIA에게는 피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였다.

특히 2022시즌에는 29경기에서 11승 7패와 평균자책점 3.69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승리를 쟁기는 등 충분한 위력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KBO 리그는 호락호락한 무

정규시즌 7경기 2승 2패 아쉬운 한국시리즈에서는 3선발로 낙점 두 차례 피홈런에도 5이닝 소화 “내가 원하는 공 마음껏 던졌다”

대가 아니었다. 8월6일 KIA와 계약을 체결한 라우어는 닷새 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라우어는 피홈런 2개를 포함 피안타 7개와 사사구 2개를 내주는 등 3.1이닝 4실점에 그치며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KIA가 패배하긴 했지만 타선이 7회 말 동점을 만들며 라우어가 패전 투수가 되지 않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데뷔전에서 고전한 라우어는 다음 등판인 8월17일 LG전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KBO 리그 데뷔 첫 승을 챙겼으나 8월 23일 NC전과 8월29일 SSG전에서는 각각 5이닝 4실점, 5이닝 5실점으로 크게 흔들리며 2패를 안았다.

결국 라우어는 한국 무대에 입성한 첫 달 퀄리티스타트를 쟁기지 못한 채 4경기에서 18.1이닝을 소화하며 1승 2패와 평균자책점 6.87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확실한 믿음을 보내기에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라우어는 아쉬움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KIA타이거즈 에릭 라우어가 지난달 2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3차전 2회말 1사 1루에서 박병호에게 병살타를 유도하며 수비를 끝낸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9월5일 한화전에서 6.1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첫 퀄리티스타트를 챙겼고 9월 12일 롯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두 번째 승리를 챙겼다.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었던 9월30일 NC전에서는 4이닝 동안 71구를 던지며 2실점을

기록한 뒤 휴식을 부여받았다.

정규시즌을 마친 라우어의 성적은 7경기에서 34.2이닝을 소화하며 2승 2패와 평균자책점 4.93이었다. 방어율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를 찾았고, 이범호 감독은 한국시리즈에서 3선발로 라우어를 일찌감치 내정했다.

투수에게 불리한 환경에서 한국시리즈 3차전 선발 등판을 맡은 라우어는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제 역할을 해냈다. 이성규와 김영웅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며 두 점을 내줬고, KIA가 2-4로 패했으나 패인은 마운드보다는 타선의 침체에 있었다.

또 라우어가 5이닝을 소화해 주면서 단기전에는 치명적인 불펜 과부하도 예방했다. 라우어는 6차전 선발 투입도 준비했으나 한국시리즈가 5차전에서 종료되면서 두 번째 등판은 무산됐다.

라우어는 한국시리즈 3차전 등판을 마친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데 집중했고, 충분히 좋은 공을 던졌다”며 “실투로 홈런을 맞았다면 실망스러웠겠지만 첫 번째는 잘 던진 공이 담장을 넘어가 놀랐고, 두 번째는 타자가 잘 노려서 쳤다”고 복기한 바 있다.

이어 “정규시즌에는 KBO 리그 데뷔전이었던 때문에 삼성 타자들에게 맞춰서 공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타석에서의 반응을 보며 여러 가지 변화를 줬다”며 “언젠가 다시 마운드에 오를 준비가 됐다. 한국시리즈는 단기전인 만큼 언제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양여고 출신 이효경·추효주·민유경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발탁

스페인·캐나다와 친선경기

광양여고 출신 여자 축구선수 이효경과 추효주, 민유경이 신상우호 2기에 발탁돼 스페인에서 열리는 스페인, 캐나다와 친선경기를 소화한다. 이번 친선경기 2연전은 새로 기틀을 다지고 있는 신상우호가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로 한 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표팀은 지난달 일본 원정 친선경기를 통해 신상우호가 출범한 후 두 번째 소집이다.

신상우호는 오는 30일 오전 3시(한국 시간) 스페인 무르시아 카르타헤나의 에스타디오 카르타고노바에서 스페인과 친선경기를 치른 뒤 다음달 4일 오전 2시에는 스페인 무르시아 산 페드로 델 피나타르의 피나타르 아레나로 장소를 옮겨 캐나다와 맞붙는다.

신 감독은 광양여고 출신 수비수 이효경(세종 스포츠토토)과 추효주(인천 현대제철), 골키퍼 민유경(화천 KSP)을 소집했다. FIFA(국제축구연맹) U-20(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콜롬비아 2024에서 맹활약한 미드필더 김신지(위덕대)와 WK리그 정규리그 우승에 공을 세운 수비수 정지연(화천 KSP)은 최초 발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년 8월 A대표팀에 최초 발탁됐으나 코로나 19로 소집이 무산됐던 공격수 현슬기(경주한수원)도 다시 부름을 받았다.

또 부상으로 신상우호 1기에 합류하지 못한 미드필더 지소연(시애틀 레인 FC)과 이영주(FC 레반테 바달로나), 이민아와 수비수 김혜리(이상 인천 현대제철), 장슬기(경주 한수원) 등 주축 자원들도 대거 복귀했다.

그럼에도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다. 각각 FIFA 랭킹 3위와 6위에 올라 있는 스페인과 캐나다는 세계적인 강호이기 때문이다.

특히 스페인은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준결승 진출(4위)의 성과를 이뤘다.

캐나다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8강 진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성적을 거뒀으며 2022 CONCACAF(북중미 카리브축구연맹) W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은 스페인과 캐나다를 상대로 각각 1승, 1승 1무 7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스페인과 유일한 맞대결은 2015 FIFA 여자 월드컵 캐나다 조별리그 E조 최종전으로 당시 한국은 2-1 역전승을 거뒀다. 캐나다와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22년 6월 캐나다 원정 친선경기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규빈 기자

‘김도영 이상 無’ 류중일호, 호주 상대 유종의 미 도전



프리미어12 오프닝 라운드 오늘 오후 1시에 최종전

초대 대회 우승과 2회 대회 준우승 등 프리미어12에서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던 한국이 3회 대회에서 자존심을 구긴 가운데 호주를 상대로 유종의 미에 도전한다. 경기 도중 고관절에 불편함을 느끼며 교체됐던 김도영(사진)도 정상 출전을 준비 중이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18일 오후 1시(한국 시간) 대만 타이베이엔무야구장에서 호주와 2024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오프닝 라운드 B조 최종전(5차전)을 치른다.

류중일호는 오프닝 라운드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과 개막전에서 완패하며 자존심을 구긴 뒤 쿠바에 완승을 거뒀지만 일본에 재역전패를 당했고, 도미니카공화국에 대역전승을 거두며 간신히 체면을 지켰다.

슈퍼 라운드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류중일호는 호주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도전한다. 3승 2패와 2

승 3패는 최종 순위에서도 위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성적이다.

대표팀은 휴식일로 체력을 충분히 충전했다. 문동주와 손주영, 원태인이 부상으로 낙마했고 엄상백을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하며 선발 자원이 고영표와 광빈, 임찬규, 최승용뿐인 가운데 이들이 4경기에서 10.2이닝을 합작하는데 그치며 불펜 과부하로 이어졌다.

최지민은 대만전에서 2.2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켰고, 광도규는 대만전과 쿠바전, 일본전까지 3경기 연속 구원 등판했다. 이영하와 김서현은 연투에 멀티 이닝까지 소화해야 했고, 김택연과 정해영, 최지민도 연투한 상황에서 반가운 휴식이 됐다.

김도영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점도 반가운 소식이다. 도미니카공화국전에서 3루수로 나선 김도영은 6회초 리카르도 세스페데스의 3루 도루에 태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좌측 고관절에 불편함을 느끼며 대수비 나섭업과 교체돼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하던 김도영은 8회말 박성환의 역전 적시 3루타와 최원준, 홍창기의 췌기타가 터지자 더그아웃에서 별책 일어나 동료들과 포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기 종료 후에도 ‘시즌 중에도 하체에 이 정도 피로감은 있었다’며 ‘호주전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 최선을 다해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규빈 기자